

지역사회공헌 인정기관 한국자활복지개발원 한국자활연수원

사람의 자립을 넘어, 지역의 희망을 키우다

사람의 자립을 지원하는 공공기관이 교육과 연수를 넘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길을 만들어가고 있다. 충주시에 위치한 한국자활복지개발원 한국자활연수원(원장 김경환)은 자활 현장 종사자와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전문 교육과 연수를 수행하는 한편, 기관이 가진 자원과 역량을 지역사회와 나누며 공공의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

복지시설 봉사과 후원 생활용품과 성금 기부, 정기 헌혈과 헌혈증 기부, 환경정화과 식목 활동, 교육시설 및 회의공간 개방까지 활동의 방식도 다양하다. 무엇보다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계획부터 실행, 평가와 환류까지 체계적인 사회공헌을 구축하며 지속 가능한 나눔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이러한 노력은 지난해 지역사회공헌 인정기관 선정이라는 성과로 이어졌다. 지역과의 신뢰를 쌓고, 기관과 지역사회가 서로 응원하며 협력해 선순환을 만들어가고 있는 한국자활연수원의 김경환 원장을 만나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공공기관의 역할과 그들이 만들어가는 사회공헌 활동의 의미,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봤다.



임직원들이 헌혈증 기부 후 감사증을 전달받으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자활의 가치를 지역사회와 나누는 공공기관 봉사부터 헌혈·환경보전·공공자원 개방까지

한국자활복지개발원 한국자활연수원은 어떤 기관인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자활사업의 전문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여 저소득층의 자립을 지원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이 가운데 한국자활연수원은 자활 현장 종사자와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교육과 연수를 수행하며, 사람을 성장시키고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는 공공연수기관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교육을 넘어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기관이 되고자 시설 개방, 봉사활동, 환경보전, 나눔 문화 확산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역사회공헌 인정기관으로 선정된 배경은 무엇인가?

무엇보다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계획부터 실행, 평가, 환류까지 체계적으로 운영해 온 점이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한다.

아울러, 사회공헌위원회를 중심으로 연간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사회와의 의견과 수요를 반영해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활동 이후에는 만족도 조사 등 평가를 실시하고, 개선사항을 다음 사업에 반영하는 등 지역사회에 필요한 자원을 발굴하고 연계하는 체계를 만들어가고 있다.



한국자활복지개발원 한국자활연수원 전경.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얻은 성과는 무엇인가?

가장 큰 성과는 지역사회와의 신뢰가 더욱 깊어졌다는 점이다. 봉사와 나눔을 통해 지역사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기관에 대한 신뢰가 높아졌고, 임직원들도 공공기관 직원으로서의 사회적 책임과 자긍심을 더욱 크게 느끼게 됐다.

또한 지난해 지역사회공헌 인정기관 선정은 이러한 노력들이 객관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성과였다.

하지만 무엇보다 값진 성과는 활동을 통해 도움을 드린 지역사회가 다시 연수원을 응원하고 함께 협력하는 선순환의 관계가 만들어졌다는 점이라고 생각한다.

지역사회공헌 인정기관으로 선정된 소감은?

지역사회공헌 인정기관 선정은 연수원 임직원 모두가 함께 만들어낸 결과라고 생각한다. 이 성과는 기관 혼자 이룬 것이 아니라 함께해 주신 지역사회와 협력기관, 그리고 사회공헌 활동에 기여해 준 임직원들의 진심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무엇보다 이번 인정은 '잘했다'는 의미보다 앞으로도 더욱 책임감 있게 지역사회와 함께하라는 격려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실천하며,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기관이 될 것이다.

앞으로 지역사회공헌 계획은?

'사람의 자립을 지원하는 기관'이라는 설립 목적을 사회공헌으로 확장해 나가고자 한다.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봉사와 나눔, 환경보전, 공공자원 개방 등 기관의 특성을 살린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사회공헌을 단순한 기부나 봉사에 머무르지 않고, 자활사업의 가치와 공공기관의 책임을 지역사회와 함께 실천하는 문화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앞으로도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믿음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충북도는 공약사업 평가·자문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하고 관련 전문가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충청북도 대전환' 공약사업 평가자문위 출범

공약 실행력 높이기 위한 위원 위촉식 및 1차 회의 개최

충북도는 11일 충북연구원 대회의실에서 민선 9기 충청북도지사 공약사업 평가·자문위원회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충청북도지사 공약실천관리조례'에 따라 전문성과 성별 등을 고려해 도내 기관 및 시민·사회단체, 관련 전문가 등 25명으로 구성됐으며, 공약사업 실천계획 심의 등의 역할을 향후 4년간 수행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는 신용환 지사의 위촉장 수여를 시작으로 전체회의 및 소위원회 회의로 이어졌다.

전체회의에서는 위원회를 이끌어갈 위원장 선출과 5개 소위원회 구성이 결정됐다. 이어 민선 9기 도정목표 공

약 추진경과 보고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진 소위원회별 회의에서는 공약사업을 확정하기 위한 100대 공약 목록(안)을 검토했다.

평가·자문위원회는 이달 말 소위원회별로 공약 실천계획을 재검토한 후, 9월 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신용환 지사는 "공약은 도민과의 엄중한 약속이며, 이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어 도민 삶이 실질적으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공약사업 평가·자문위원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도민의 삶을 바꾸는 데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충북도는 청소년 AI 심리상담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5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충북도, 청소년 AI 심리상담 사업 업무 협약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및 정서적 위기 대응

충북도는 10일 도청 여는마당에서 충북도교육청, SK하이닉스, 충청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과 청소년 AI 심리상담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청소년의 우울·불안·자해 등 정서적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AI 기반 심리상담 서비스와 전문상담 연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충북도와 협약기관들은 AI 기반 심리상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이를 탑재한 무인 상담기기를 청소년시설 등에 설치·운영해 청소년의 심리상담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AI를 통해 감지된 정서적 위험 신호를 전문상담기관과 연계해 고위험군 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신용환 지사는 "청소년의 마음건강은 지역의 미래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투자"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AI 기술과 전문 상담을 접목한 새로운 정신건강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청소년들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상담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관이 함께 협력해 충북을 청소년 AI 심리상담의 선도모델로 육성하고,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는 성공 사례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사회복지 정보제공 서비스' 신청

쉽고 간편하게 사회복지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01 발송횟수: 주 3회

02 발송내용

- 도내 사회복지 행사(주 1회)
- 유관기관 공모사업(주 2회)

03 발송대상: 도내 사회복지시설(기관) 종사자



청주시, 재가노인 식사배달 다화용기 전환

4개 기관과 협약... 친환경 자원순환 문화 정착

청주시는 목령종합사회복지관(관장 김우탁), 오송종합사회복지관(관장 유응모), 청주청원시니어클럽(관장 김학도), 청주시 다화용기 공공세척센터(대표 김은숙) 등 4개 기관과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에 다화용기를 도입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현재 청주지역 11개 사회복지관에서 식사배달 서비스를 이용하는 전체 대상자는 약 850명 규모다.

이번 시범사업은 목령종합사회복지관과 오송종합사회복지관을 이용하는 재가노인 144명을 대상으로 우선 추진된다.

청주시는 2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이번 사업을 추진하며, 다화

용기와 보냉가방 지원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행정·재정 지원을 총괄한다.

목령·오송종합사회복지관은 도시락 배달과 사용한 다화용기 회수 및 관리를 담당한다.

아울러 청주청원시니어클럽은 도시락 조리과 다화용기 포장을 맡으며, 회수된 용기는 청주시 다화용기 공공세척센터에서 위생적인 세척을 거쳐 재사용된다.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은 월 4차례 1인당 6종의 음식을 홀몸 어르신에게 배달하는 사업이다.

청주시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일회용품 폐기물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청주시는 시범사업 기간 다화용기 회수율, 세척 및 공급 안정성,



청주시는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의 다화용기 전환을 위해 4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어르신 이용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이후 2027년도 분예산에 관련 비용을 반영해 청주지역 11개 전체 사회복지관 850명에게 다화용기 배달을 전면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장섭 시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일회용품 사용을 감축하는 환경정책과 어르신 복지서비스를 연계한 것”이라며 “자원순환 문화가 지역사회에 자연스럽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단양군, 적성농공단지에 ‘일하는 기쁨’ 공동작업장 개소

관리사무소에 조성... 20명 규모로 확대 추진

단양군은 11일 전일제 근무가 어려운 여성과 청년의 경제활동을 돕기 위해 적성농공단지 관리사무소에 ‘일하는 기쁨’ 공동작업장을 조성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이곳은 전일제 근무가 어려운 여성이나 경제활동을 쉬고 있는 청년들에게 근무 여건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해 소득 창출과 사회 진출의 기회를 제공한다.

작업장은 육아와 가사 등으로 장시간 근무가 어려운 주민들이

비교적 유연하게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동작업장 형태로 운영된다.

사업에는 문구류 제조업체인 라인플러스가 참여해 작업장에서 문구류 포장 작업을 진행한다.

현재는 8명이 오전 시간대 작업에 참여하고 있다.

군은 추가 모집을 통해 오전·오후 총 20명 규모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일하는 기쁨 사업’은 일할 의지



‘일하는 기쁨’ 사업 참여자들이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가 있어도 개인적인 여건으로 전일제 근무가 어려운 주민에게 세

로운 일자리 선택지를 제공하는 데 주치가 있다.

제천시, 주민 주도 ‘농촌형 통합돌봄’ 시범사업 추진

4개 읍·면서 진행... 의료·복지·주거까지 지원 확대

제천시는 농촌지역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주민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농촌형 통합돌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농림축산식품부, 충북사회서비스원과 함께 8월부터 12월까지 수산면·백운면·덕산면·봉양읍 등 4개 읍·면에서 시범사업을 운영한다.

이번 사업은 의료·복지 등 전문 서비스가 부족하고 교통 여건이 상대적으로 불편한 농촌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기존 농촌돌봄 서비스에 보건의료와 복지, 주거 분야까지 연계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는 그동안 4개 읍·면에서 주민공동체를 중심으로 추진해 온 농촌돌봄 사업을 기반으로 통합돌봄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기존에는 돌봄이 필요한 주민을 발굴해 생활형 이동서비스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했다면, 이번 사업에서는 의료·복지·주거 분야 등을 추가해 주민들의 생활 전반을 지원한다.

특히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농촌의 여건을 고려해, 고령자와 거동이 불편한 주민들이 생활권 안에서 복지시설 등 필요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주민공동체는 돌봄이 필요한 이웃에게 정기적으로 방문해 생활 상태와 필요한 지원을 살피고,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과 서비스를 연결하는 역할을 맡는다.

시는 사업 과정에서 주민 참여와 서비스 제공 현황, 성과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해 제천 농촌지역에 적합한 지속 가능한 통합돌봄 모델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제천시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기존 생활형 이동서비스에 보건의료와 복지, 주거 분야를 더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촘촘한 돌봄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주민이 주도하고 지역이 함께 하는 제천형 농촌 통합돌봄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충북사회복지신문

발행인 유응모	사회복지 출판·홍보위원장 박상준
(28583) 충북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87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3층	
전화 : 043-234-0840	FAX : 043-234-0849
E-mail : cbbokji043@naver.com	홈페이지 : www.043w.or.kr

음성군, 현금지원 넘어 ‘생활비 절감형 복지’ 강화

보건·복지·교통 등 기본서비스 확대

음성군은 일회성 현금지원을 넘어 아동·청년·노년 등 생애주기별 실용복지를 실현하고, 실질적인 생활비를 줄여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6일 밝혔다.

먼저 금왕읍에 공공산후조리원과 육아돌봄센터를 결합한 ‘아이맘케어센터’를 건립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아이키우기 좋은 음성’을 만든다는 전략이다.

민간시설보다 30~50% 저렴한 이용료로 운영하며, 임신부터 육아까지 지원하는 ‘음성 맘(Mom)’ 편한 안심케어 패키지를 통해 출산장려금과 산후조리비 지원, 공공형 돌봄시설 확대 등도 추진한다.

청년층 지원도 강화한다. 군은

금왕읍에 2027년 말 준공을 목표로 ‘상상대로 청년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고, 청년들의 커뮤니티와 문화·자기계발 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아울러 ‘청년 친화도시’ 기반을 마련해 청년 정책 체계와 지역 특화 사업을 확대한다.

아울러 고령층을 위한 일자리 사업도 확대된다. 2025년 161억 원이었던 노인일자리 예산을 올해 172억원으로 늘렸으며, 내년부터는 매년 5% 이상 노인일자리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군이 복지모델의 핵심으로 제시한 ‘음성형 기본사회’는 군민의 지출을 줄이는 ‘기본서비스’에 초점을 맞췄다.

대표적으로 ‘음성형 햇빛마을’

사업을 통해 2030년까지 349개 마을의 유희 부지에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지원하고, 발전 수익을 경로당 운영비 등 주민 복지비로 활용한다.

또한 지역화폐인 ‘음성행복페이’ 발행 규모를 20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매월 10% 이상의 인센티브를 안정적으로 유지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 지출 감소를 동시에 추진한다.

이 밖에도 대상포진·백일해 무료 예방접종, 농어촌버스 무료화, 행복택시 확대, 농작업 대행과 필수 농자재 지원 등 보건·교통·농업 분야의 기본서비스를 확대해 세대·계층·지역 간 격차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현금성 지원이라는 일시적 처방 대신 생활비를 줄여주는 실질적인 기본복지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진천군, 장애인 돌봄 맞춤형 서비스 대폭 확대

지원 규모 486명으로... 관련 예산도 11% 증액

진천군은 올해 발달장애인의 자립 지원과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해 장애인 돌봄서비스 지원 규모를 486명으로 확대하고, 관련 예산도 11% 증액했다고 5일 밝혔다.

주요 지원은 장애인의 생애주기와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에 초점을 맞췄다.

장애인활동지원, 최종증 발달장애인 1대1 지원, 발달장애인이

간·방과후활동 서비스 등의 이용인원을 확대했다.

특히 장애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자는 기존 181명에서 233명으로 52명 늘렸다.

이와 함께 군은 활동지원사 처우개선수당을 신설하고, 이동권 보장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수리비 지원사업’도 새롭게 추진할 예정이

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는 동시에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돌봄서비스의 질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이정은 가족친화과 주무관은 “돌봄은 장애인 개인뿐 아니라 가족의 삶까지 함께 지키는 중요한 복지서비스”라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정책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충주시-NHN와플렛 ‘AI 생활지원사’ 도입

스마트폰으로 24시간 예방형 통합돌봄



충주시는 NHN와플렛과 AI를 활용한 예방형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AI 생활지원사 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충주시는 오는 9월부터 돌봄 대상자의 24시간 안부 확인이 가능한 ‘인공지능(AI) 생활지원사’ 서비스를 도입한다.

시는 12일 중회의실에서 NHN와플렛(대표 황선영)과 AI를 활용한 예방형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AI 생활지원사 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서비스는 AI 기반 안부 확

인, 생활 반응 모니터링, 건강·복약 관리, 정서 지원, 관제·출동 연계 등을 제공한다.

특히 별도의 장비 없이도 스마트폰으로 실내는 물론 외출 중에도 상시 모니터링이 가능해 기존 안부 확인 서비스의 한계를 보완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생활 패턴과 활동량 분석, 장시간 미사용 감지, 안부 메시지

발송, 유선 안부 확인, 24시간 관제·긴급출동 연계 등을 통해 위기 상황을 조기에 발견하고 대응하는 예방형 돌봄체계를 갖추게 된다.

시는 대상자 수요를 반영해 지원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번 협약은 의료·요양 통합돌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충주 스마트 365 돌봄지킴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마련됐다.

NHN와플렛은 협약을 기념해 노인 여가 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AI 바둑로봇 1대를 시에 기증했다.

이동석 시장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돌봄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AI 스마트 돌봄은 든든한 대안이 될 것”이라며 “의료·요양 통합돌봄과 연계해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빈틈없는 돌봄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전문봉사단이 되어 나눔을 실천하세요! 지역사회봉사단!

지역사회봉사단이란?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시스템(vms)에 등록된 다양한 재능과 특기를 갖춘 봉사자들이 모여 사회복지기관·시설·단체·소외계층에게 지속적으로 맞춤형 봉사활동을 하는 전문 자원봉사단

위촉기준

vms 가입되어 있으며,
2인 이상으로 구성되고
연 4회 이상 활동 가능한 단체

봉사단 혜택

활동재료 지원
자원봉사활동 시간(vms) 인정·관리
봉사활동 연계
다양한 문화공연 초청

SSN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복지정보과 박민정 코디네이터 전화) 043-234-0840

재가 어르신 69.4% “아파도 살던 집에서”

복지부, 2025년 장기요양실태조사 결과 발표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7일 장기요양 수급자 규모와 급여 수준, 제도 만족도, 장기요양기관 현황,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처우 등을 담은 ‘2025년 장기요양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장기요양실태조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조의2에 따라 2019년부터 3년마다 실시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장기요양 수급자 4500명, 수급자 가족 3368명, 장기요양기관 1991개소, 장기요양요원 45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재가급여 수급자의 69.4%는 건강이 악화되더라도 현재 거주지에서 계속 생활하기를 희망한다고 답했다. 이는 직전 조사(2022년 49.8%)보다 19.6%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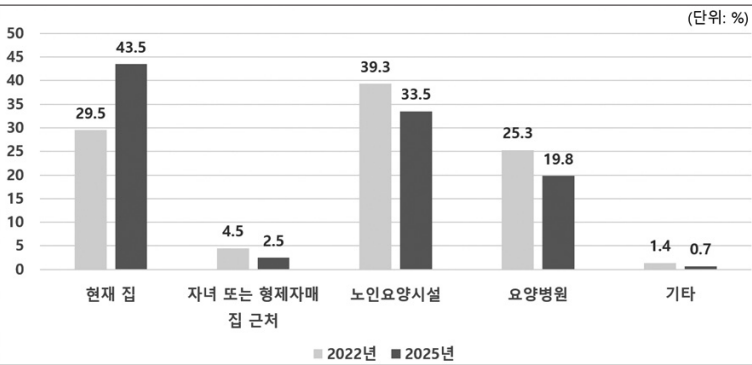
반면 건강이 악화될 경우 노인요양시설 입소를 희망한다는 응

답은 17.6%로, 2022년(28.7%)보다 11.1%포인트 감소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설 입소보다 지역사회에서 계속 생활하기를 원하는 욕구가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장기요양 수급자의 고통화와 독거가 심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5세 이상 수급자 비율은 47.3%로 2022년(44.2%)보다 3.1%포인트 증가한 반면, 75세 이상 85세 미만 수급자는 37.6%로 같은 기간 2.9%포인트 감소했다.

이와 함께, 재가급여 수급자 가운데 혼자 사는 비율은 43.6%로 직전 조사(40.2%)보다 3.4%포인트 늘었다.

시설급여 수급자의 입소 전 독거 비율도 59.3%로 2022년(37.3%)보다 22.0%포인트 증가해 최근 노인의 독거 증가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상태 악화 시 돌봄 선호 감소.

한편, 장기요양서비스 수급자 가족의 제도 만족도는 84.6%였다. 서비스를 통해 부양 부담이 완화됐다는 응답은 모든 항목에서 70% 이상으로 나타났다. 다만 수급자 가족의 51.6%는 여전히 돌봄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장기요양요원의 고통화도 뚜렷했다. 전체 장기요양요원 가운데 60세 이상은 63.4%로 직전 조사(62.9%)보다 소폭 증가했으며, 70세 이상은 17.7%를 차지했다. 특히 재가급여 종사

자의 70세 이상 비율은 20.2%로 시설급여 종사자(6.7%)보다 크게 높아 재가 분야의 고통화가 더욱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복지부는 집에서 계속 생활하기를 희망하는 재가급여 수급자가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중증(1·2등급)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급자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야간보호기관에서 24시간 돌봄을 제공하는 단기보호 서비스를 제도화할 방침이다.

장기요양기관 통한 ‘병원동행 시범사업’ 개시

이동보조부터 진료·약 수령 등 전 과정 지원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병원 진료가 필요한 장기요양 수급자가 안전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난달 30일부터 ‘장기요양 병원동행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이번 사업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통합재가기관과 노인요양시설 등 전국 282개 기관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은 병원까지 이동하거나 접수·수납 등 복잡한 병원 이용 절차를 혼자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동안 이러한 역할은 대부분 가족이 맡아왔지만, 직접 동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의 동행 인력을 구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이에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통합재가기관을 중심으로 병원 동행 지원체계를 마련, 장기요양 수급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사업에는 통합재가기관 170개소와 이들 기관과 협약을 맺은 노인요양시설 112개소 등 총 282개 기관이 참여한다.

서비스는 통합재가기관 소속 방문요양보호사 또는 노인요양

시설 소속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제공하며, 참여 기관 현황은 건보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www.longtermcar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비스 대상은 통합재가기관을 이용하는 장기요양 수급자와 통합재가기관과 협약을 맺은 노인요양시설 이용자다.

2026년 기준 1인당 연간 50만 원 한도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장기요양 급여비용 본인부담률에 따라 비용을 납부한다.

서비스 제공 인력은 출발지에서 병원까지 이동을 돕고 접수·수납, 진료와 검사, 대기, 처방약 수령 등 병원 이용 전 과정을 지원한 뒤 귀가까지 함께한다.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산모 중증장애’까지 보상

환자·의료진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건복지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의 일환으로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을 지속해서 확대해 오고 있다.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란 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분만 과정이나 분만 이후 불가항력으로 발생하는 의료사고를 말한다.

지난해 7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의 보상 한도를 최대 3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상향한 데 이어, 이달부터는 국가 책임 대상에 기존 신생아 뇌성마비·신생아 사망·산모 사망에서 ‘산모 중증장애’까지 확대한

다.

아울러 내년 5월부터는 현재 ‘분만’ 관련으로 한정된 국가 보상 범위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서 발생한 의료사고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고위험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기피 현상을 완화하고, 의료진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예산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확대 대상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시간당 ‘1만7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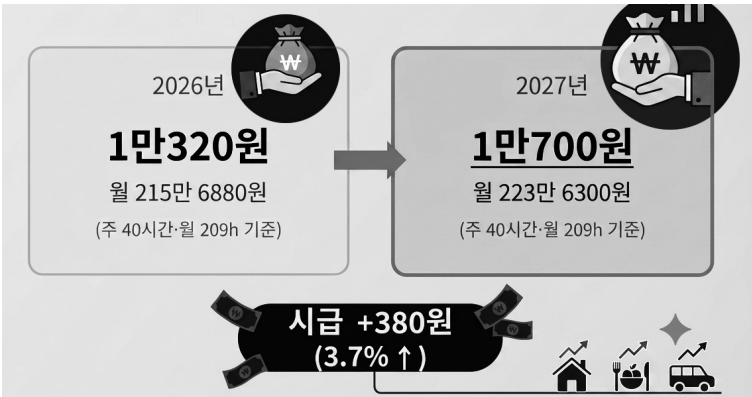
올해보다 380원 올라... 월 환산액 223만6300원

고용노동부는 5일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700원으로 결정·고시했다. 이는 올해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만320원보다 380원(3.7%) 인상된 금액이다.

월 환산액은 223만6300원(1주 소정근로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이며,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도급제 근로자에게는 별도의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고용노동부는 7월 16일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이후 7월 27일까지 이의 제기 기간을 운영했으며, 민주노총과 소상공인연합회가 이의를 제기했다.

제기된 이의는 최저임금법의 규정 취지·내용 및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의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용하지 않았다.



2027년 최저임금 인상안 요약 이미지.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준수되도록 홍보·안내와 사업장 지도·감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2006·2007년생 모여라... 청년문화예술패스 하반기 추가 발급

수도권 15·비수도권 20만원... 11월 30일까지 접수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회)와 함께 ‘청년문화예술패스’를 추가 발급한다고 10일 밝혔다.

‘청년문화예술패스’는 대한민국 19~20세 청년에게 공연·전시·영화 등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2006년생과 2007년생이 지원 대상이며, 이번 추가 발급부터는

기존 공연·전시·영화에 도서 분야가 추가돼 청년들이 관심과 취향에 따라 다양한 문화예술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올해 청년문화예술패스는 상반기 발급 기간 동안 약 26만5000명이 발급받았다.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9.2%가 “청년문화예술패스가 향후 문화생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청년들의 문화

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생활을 지원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추가 발급은 상반기 발급 이후 전액 미사용으로 회수된 지원금을 활용해 추진된다. 신청 기간은 11월 30일까지이며 신청 순서에 따라 발급한다.

지원금은 신청 당시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기준으로 수도권 거주 청년에게 15만원, 비수도권 거주 청년에게 20만원을 지원한다. 다만 상반기에 청년문화예술패스를 발급받은

뒤 7월 31일까지 지원금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아 전액 회수된 경우에는 이번 추가 발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은 12월 31일까지 9개 협력판매처에서 공연·전시·영화를 예매하거나 도서를 구매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공연·전시는 티켓링크, 멜론티켓, 예스24 티켓, 놀티켓에서, 영화는 메가박스, 씨지브이, 롯데시네마에서 예매할 수 있다. 도서는 서점온과 예스24 도서에서 구매할 수 있다.

자녀 돌봄 필요할 때 1~2주 단기 육아휴직 가능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20일로 확대·유산휴가 등 신설

정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과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먼저 단기 육아휴직이 신설돼 8월 20일부터 시행된다. 휴원·휴교·방학, 자녀의 질병·사고로 인한 입원 등 집중적으로 자녀를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 연 1회, 1주 또는 2주간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단기 육아휴직 기간은 기존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되지만,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단기 육아휴직 기간에도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방학을 사유로 단기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에는 30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휴원·휴교나 자녀의 질병·사고로 인한 입원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일 육아휴직을 시작할 수 있다.

아울러 남성 근로자의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도 허용돼 9월 18일부터 시행된다. 앞으로 남성 근로자는 임신 중인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등 건강상 위험이 있는 경우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자녀 출생 전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육아휴직은 휴직 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하면 된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도 9월 18일부터 확대된다. 앞으로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예정)일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등을 적은 문서를 제출해 휴가를 고지하면, 사업주는 해당 기간 내 20일의 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이와 함께 배우자 유산·사산 휴가도 신설돼 9월 18일부터 시행된다. 남성 근로자의 배우자

가 유산·사산한 경우 5일 범위에서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최초 3일은 유급이다.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는 유급휴가 기간에 통상임금 100%에 해당하는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도 받을 수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거부 사유도 축소돼 9월 18일 신청자부터 적용된다.

기존에는 근로자의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기 곤란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었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는 허용예외 사유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육아기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이 필요한 경우 제도를 보다 폭넓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니버설디자인체험센터에서는 복지+디자인+주택의 개념을 통해 보편적 복지에 대한 이해와 체험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니버설디자인체험센터 구성

주택체험관

유니버설디자인을 도입한
거주공간 설계를 통해 모두가
불편함 없는 생활 공간 체험

유디체험관

모두를 위해 디자인 된
UD적용 일상용품 이해

휠체어 체험관

이동약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휠체어를
통해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주행 체험

교육 신청하기 > 043-234-0840~2

충북모금회 “특별모금 동참해 주세요”

남해안 호우 피해 복구 지원
내달 15일까지 이웃돕기성금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이민성, 이하 충북모금회)는 9월 15일까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과 주민을 돕기 위한 ‘2026년 호우 피해 특별모금’을 실시한다.

지난 광복절 연휴 기간 경남 거제시와 통영시를 비롯한 남해안 일대에 집중호우가 발생해 누적 강수량이 900mm를 넘어서면서 주택과 도로 침수 등 피해가 잇따랐다.

1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주택·도로 침수와 수목 전도 등 2574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으며, 거제·통영·울산 등에서 4명이 다치고 거제시 옥포동에서는 1명이 사망했다.

이에 충북모금회는 피해지역

주민들의 신속한 일상 회복과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특별모금에 나선다.

이민성 회장은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삶의 터전을 잃거나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신 이웃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호우 피해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는 만큼, 충북모금회도 도민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모아 피해지역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이번 특별모금은 9월 15일까지 진행되며, 모금된 성금은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피해지역 주민들의 일상 회복과 피해 복구를 위해 지원될 예정이다.

성금은 농협 313-01-144258(충북공동모금회) 계좌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기부금 세제혜택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충북모금회(☎043-238-9100)로 문의하면 된다.

2026년 호우피해 특별모금

함께하는 나눔, 다시 일어서는 희망

갑작스러운 집중호우로 삶의 터전을 잃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을 위해 여러분의 따뜻한 나눔을 기다립니다.

모금기간

2026년 08월 18일 ~ 2026년 09월 15일까지

지원계획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지원
현물(의약품등)은 지역구호센터(지자체)를 통해 지원

기부문의

043-238-9100

농협은행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충청북도지회

313-01-144258

전해주시 따뜻한 마음은 피해지역 주민들의 일상 회복과
다행히 이웃들은 희망을 품고 다시 일어서는 희망을 기다립니다.

호우피해 특별모금 홍보 포스터.



충청북도사회복지사협회는 제13대 충청북도의회 의원 가운데 사회복지사 자격을 보유한 7명에게 ‘동행배’를 전달했다.

사회복지사 출신 도의원 7명, 복지 현장 동행

충북사회복지사협회, 의회 협력 ‘동행배’ 전달

충청북도사회복지사협회(회장 조수동)는 지난 10일 출범한 제13대 충청북도의회 의원 가운데 사회복지사 자격을 보유한 7명에게 당선 축하와 함께 사회복지 현장과의 동행을 약속하는 ‘동행배’를 전달했다.

충북도의회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송미애·오창근·이숙애·

이윤재·임동현·최재호·최충진 의원 등 사회복지사 자격을 보유한 도의원 7명이 참석했다.

“함께해야 통합입니다”라는 슬로건을 내건 협회는 약 4500명의 회원을 대표해 의원들에게 사회복지 현장과의 동행을 당부하는 의미로 ‘동행배’를 전달했다. 참석 의원들도 사회복지 현장의 목소

리에 귀 기울이고 복지 증진을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이번 행사는 충북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 의회와 사회복지 현장이 긴밀히 소통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복지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협력의 출발점으로 마련됐다. 아울러 민·관이 함께 복지정책을 실현하는 협력체계를 강화한다는 의미도 담겼다.

한편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된 사회복지사는 전

국 478명으로, 이 가운데 충북사회복지사협회 소속 당선자는 광역의원 14명, 기초의원 34명, 군수 3명이다. 이는 서울·경기를 제외하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규모다.

조수동 회장은 “사회복지사로서의 가치와 경험을 바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실 의원님들께서 현장의 목소리를 최우선으로 반영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장애인 가정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제천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제천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센터장 김순애)는 장애인가정의 실제 욕구와 복지서비스 만족도를 파악하고 지역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장애인가정

100Case 실태조사 및 FGI(초점집단면접)’를 추진한다.

이번 연구는 장애인 100가정을 대상으로 가정방문 설문조사와 초점집단면접(FGI)을 진행해 돌봄·경제·정서·가족관계 등 장애인가정이 겪는 다양한 어려

움과 복지 욕구를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가정의 특성과 지역 여건을 반영한 사례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사회 복지정책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현재 장애인가정은 복지서비스가 확대되고 있지만 실제 체감하는 지원 수준과 지역별 욕구를 반

영한 객관적인 연구자료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이번 조사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량·정성적으로 분석하고 사례관리의 질을 높이는 한편, 지역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연구발표는 박소영 세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맡아 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정책적 제언을 제시한다.



충북장애인종합복지관이 장애인 일자리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충북장애인종합복지관, 일자리 공모전 ‘최우수’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이승한)은 지난 7월 22일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주최한 ‘2026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우수사례 선발 공모전’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이번 공모전은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현장의 우수 운영 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었으며, 전국 17개 시도 장애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및 일자리 참여자를 대상으로 우수사례 및 참여 수기를 공모했다.

공모 결과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은 ‘최우수’ 수행기관으

로 선정됐으며, 특화형(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김재은 씨도 우수참여자로 선정돼 한국장애인개발원장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장애인일자리사업에 대해 궁금한 점은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043-856-1100) 직업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 “가족과 추억 쌓아요”

위탁가정 유대감 향상 도모

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관장 장화정)는 19일 도내 위탁부모 및 아동 90명을 대상으로 덕산 스피라스 리솜 워터파크에서 가족문화체험의 시간을 마련했다.

이 행사는 위탁부모와 아동이 함께 워터파크 활동에 참여하며 무더운 여름을 활기차게 보낼 수 있도록 기획됐다. 같은 공간에서 뛰어놀고 함께 웃으며 쌓아가는 경험을 통해 위탁가정 내 정서적 유대감을 높이고자 하였으며, 아동이 안정적인 가족 안에서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위탁부모는 “평소에는 바쁜 일상으로 아이와 충분한 시간을 보내기 어려웠



위탁부모와 아동이 워터파크에서 함께 물놀이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는데, 이번 행사 덕분에 오늘 하루가 우리 가족에게 오래 기억될 것 같다”고 소감을 남겼다.

장화정 관장은 “위탁가정의 아이들이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충

분히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오늘처럼 온 가족이 함께 웃을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가정위탁제도는 부모의 학대나 방임, 빈곤 등의 사정으로 원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아동에게 아동복지법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일정기간 위탁가정을 제공하는 아동복지서비스다.

더불어 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행복하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아동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실시하고 위탁가정을 발굴, 연계, 교육하는 충청북도 지정 아동복지기관이다.

단양군자원봉사센터, 마을지니어들 봉사단 발대

세무·행정 등 10명 위촉

단양군자원봉사종합센터(센터장 홍민우)는 12일 ‘2026년 찾아가는 단양군 마을 지니어들’ 전문봉사단을 발대하고 위촉식을 가졌다.

“마을지니어들”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주민들이 재능기부를 통해 일상생활 속 불편과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마을 공동체형 전문봉사단이다.

봉사단은 분야별 전문성을 활용한 재능기부 활동 사례와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주민들에게 실



단양군자원봉사센터는 마을지니어들 봉사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위촉장을 전달했다.

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활동 방안과 마을 지니어들 지속적 인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홍민우 센터장은 “지역공동체 발전을 위해 소중한 재능 나눔에

참여해 준 마을지니어들 봉사자들에게 감사하다”며 “지역 주민의 생활 속 어려움을 해결하고 충북을 대표하는 재능기부 전문봉사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SSN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www.043w.or.kr

충북복지넷

충청북도의 복지정보와 복지서비스를 한눈에!

맞춤복지서비스찾기

SSN 교육

바로가기

복지정보·연구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대관

복지광장



윤 대 현

충북중부아동보호전문기관장

뜨거웠던 여름도 어느덧 끝자락을 향하고 있다. 휴가지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고, 아이들은 개학을 앞두고 남은 방학을 헤아린다. 가족과 함께한 여행과 물놀이, 늦잠과 여유는 한동안 즐거운 기억으로 남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모든 아이에게 여름방학과 휴가가 반가운 시간인 것은 아니다. 누군가에게 방학은 즐거운 쉼이지만, 또 다른 아이에게는 보호의 시선이 줄어든 채 두려움과 외로움을 더 오래 견뎌야 하는 시간이 된다.

여름의 끝, 아이들의 안부를 묻다

다.

두 사건의 결과가 달랐던 데에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아이의 위험을 알아차리고 도움을 요청한 누군가의 관심이 중요한 출발점이 됐다. 결국 아이를 지키는 첫걸음은 거창한 보호체계가 아니라 일상에서 주변을 살피는 작은 관심에서 시작될 수 있다.

두 사건은 방임이 결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일'에 그치지 않음을 보여준다. 어린아이에게 먹을 것과 물을 충분히 주지 않는 것, 위험한 공간에 홀로 두는 것, 필요한 돌봄과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학대다. 특히 영유아에게 보호자의 부재는 외로움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여름방학과 휴가철에는 아이들을 둘러싼 일상의 보호망이 느슨해질 수 있다. 학교와 어린이집의 일정이 달라지고, 이웃도 휴가로 집을 비운다. 평소 아이의 얼굴과 생활을 살피던 어른들의 시선이 줄어들는 시기다. 가정 안에서 폭력과 방임을 겪는 아이에게 방학은 안전한 쉼이 아니라 위험한 공간에 더 오래 머무는 시간이 될 수 있다. 휴가철이 끝나간다고 해서 그 위험까지 함께 끝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살펴야 할 것은 거창한 징후만이 아니다. 어린이의 울음이 오랫동안 이어지거나, 보호자 없이 반복해서

혼자 있는 모습이 보이거나, 며칠째 아이의 인기가치가 느껴지지 않는다면 한 번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 평소와 다른 심한 위축, 설명하기 어려운 상처와 결석도 아이가 보내는 신호일 수 있다.

다만 직접 보호자를 찾아가 추궁하거나 아이에게 상황을 반복해서 묻는 것은 또 다른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학대가 의심된다면 개인이 해결하려 하기보다 112에 신고해 경찰과 지자체 등 관계 기관이 아이의 안전을 확인하도록 해야 한다.

이후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피해아동과 가족에 대한 전문적인 사례관리와 회복 지원을 이어갈 수 있도록 공적 보호 체계에 연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도움이다. 신고는 누군가를 범죄자로 단정하는 일이 아니라, 아이의 안전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는 일이다.

여름은 끝나가지만 아이들을 향한 관심에는 끝이 없어야 한다. 모두의 휴가가 추억으로 남는 동안, 어느 닫힌 문 안에서 긴 하루를 홀로 견뎌낸 아이는 없었는지 돌아봐야 한다. 특별한 영웅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작은 이상함을 외면하지 않는 눈과 그 관심을 신고로 이어가는 평범한 어른들의 용기가 필요하다. 모든 아이에게 이번 여름이 외로움과 두려움이 아니라, 안전하고 따뜻한 기억으로 남을 수 있기를 소망한다.

복지칼럼

무대 위에서 찾은 나
자립으로 이어지다

신 봉 기

옥천군장애인가족지원센터장

발달장애인의 자립은 단순히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다. 지역사회 안에서 자신의 역할을 찾고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힘을 키우는 과정이다. 이러한 자립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작은 경험과 성공이 쌓여 자신감이 되고, 그 자신감이 삶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된다. 옥천군장애인가족지원센터 발달장애인 '인형극단옥장가'가 지난 5년 동안 걸어온 길은 이러한 자립의 의미를 잘 보여주는 사례다.

인형극단옥장가는 단순히 공연을 선보이는 예술단이 아니다. 문화예술을 통해 발달장애인이 세상과 소통하며 스스로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힘을 키워가는 배움터다. 단원들은 어린이집과 학교, 복지시설, 지역행사 등을 찾아 성폭력 예방 인형극을 공연하며 장애인식 개선의 메시지를 전해 왔다. 공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약속을 지키고 서로를 배려하며 맡은 역할을 끝까지 해내는 경험은 책임감과 사회성을 길러주었고, 무대 위에서 받은 관객들의 따뜻한 박수와 응원은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이어졌다. 그렇게 쌓인 작은 성공의 경험들은 사회참여와 자립을 향한 든든한 디딤돌이 됐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힘찬 인사와 함께 인형극의 막이 오르면 인형극단옥장가 단원들은 무대 위에서 긴장과 설렘을 안은 채 자신을 믿고 한 걸음 내딛는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흘린 땀과 노력은 무대 위에서 빛을 발하고, 그 순간 단원들은 단순히 인형을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관객과 마음을 나누는 이야기꾼이 된다. 이러한 변화는 단원 전0성 씨의 성장 과정에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 처음에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조차 쉽지 않았지만, 꾸준한 연습과 공연을 거듭하며 조금씩 자신감을 쌓아갔다. 이제 그는 맡은 역할을 책임감 있게 수행하고, 관객과 자연스럽게 호흡하며 무

대를 이끄는 든든한 단원으로 성장했다. 무대에서 얻은 자신감은 공연장에만 머물지 않았다. 자신의 역할을 끝까지 해낼 수 있다는 경험은 스스로를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바라보게 했고, 삶을 보다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었다.

전0성 씨는 현재 옥천FM공동체 라디오 '동물박사 전0성' 코너를 진행하며 다양한 동물 이야기를 쉽고 흥미롭게 전하고 있다. 인형극단 활동을 통해 길러온 표현력과 소통 능력은 새로운 무대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졌고, 이제 그는 라디오를 통해 더 많은 사람과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며 세상과 소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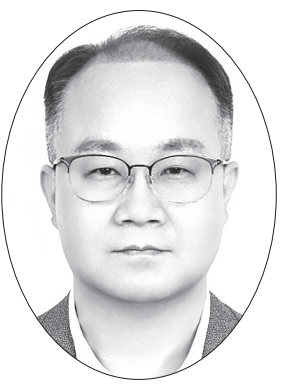
전0성 씨의 변화는 한 사람의 성장을 넘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깨고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보여주는 사례다. 장애인에 대한 이해는 장애의 정도로 결정되지 않는다. 믿어주고 기다려주는 사람들, 그리고 끊임없이 도전하고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이 있을 때 그 가능성은 비로소 꽃을 피운다. 인형극단옥장가는 오늘날 문화예술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꿈과 가능성을 키우며,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희망의 무대를 만들어가고 있다.

문화예술은 더 이상 단순한 여가 프로그램이 아니다. 자신감을 키우고 의사소통 능력과 사회성을 높여 사회참여를 준비하고 자립을 돕는 중요한 복지의 영역이며, 지역사회 참여를 확대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다. 이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회는 문화예술 활동이 장애인 평생교육과 직업재활, 사회참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일회성 프로그램에 그치지 않고 참여자들이 꾸준히 경험을 쌓으며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난 5년 동안 인형극단옥장가가 보여준 것은 공연의 성공이 아니라 사람의 성장이다. 작은 무대에서 시작된 용기는 자신을 믿는 힘이 되었고, 그 힘은 지역사회와 함께 살아가는 자립으로 이어졌다. 발달장애인의 꿈이 개인의 꿈에 머물지 않고 지역사회의 희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문화예술을 통한 성장과 자립의 기회가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

발달장애인에게 필요한 것은 특별한 배려가 아니라 자신의 가능성을 펼칠 수 있는 기회다. 문화예술은 그 기회를 만들고, 스스로의 가능성을 발견하게 하는 소중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작은 무대에서 피어난 희망이 지역사회의 큰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현장의 목소리



변 필 수

제천시니어클럽 안전전담인력

올해부터 전국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에 '안전전담 인력'이 처음 배치되었다.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사업이 확대되고 폭염·집중호우·한파 등 기후위기까지 심화되면서 참여자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한층 커졌기 때문이다. 노인일자리 활동영역도 공원·거리를 넘어 독립 사업체·학교·복지시설 등으로 넓어져 전문적인 안전관리 체계가 절실했다.

처음 안전전담 업무를 맡아 출근했을 때 든 생각은 솔직히 '막막함'이었다. 전임자도, 인계받을 자료도 없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운영안내서와 안전브로슈어가 있었지만 가이드라인 수준이라 현장의 세밀한 업무까지 담지

못했다. 나이가 30여 년간 군에서 사고 예방 업무만 경험한 필자에게 노인일자리 현장은 생소했고, 자료만으로 역할과 방향을 잡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즉, 그 막막함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가 아닌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막막함이었다.

이러한 어려움은 다른 수행기관들도 비슷했을 것이다. 사업담당자 업무의 일부였던 안전 업무가 별도 직무로 분리되면서, 전문성을 집묵한 체계를 현장에 정착시켜야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먼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구하려고 했다. 노인일자리 기본법령은 물론 산업안전, 재난, 보건, 보상 관련 법령과 지침 가운데 안전 관련 근거를 직접 확인·정리했다. 이와 함께 제천시니어클럽의 사업 구조와 사업단별 특성을 보고, 묻고, 들으며 이해하려 노력했다. 단순히 업무를 배우는 차원을 넘어 "우리 기관에 맞는 안전전담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스스로 정립하는 과정이었다.

하지만 방향을 잡는 동안에도 참여자들은 매일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이에 업무체계 정비와 실제 예방활동을 동시에 추진하는 '두 트랙' 방식이 필요했다.

우선 노인일자리 안전사고 경향을 분석했다. 군에서의 범죄예방 데이터 분석 경험을 살려, 실질적인 예방을 위해 우리 기관의 지난 7년간 안전사고를 연령·사업단·계절·장소·사고유

형·활동환경 등으로 세분화해 정리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넘어짐 사고가 압도적으로 많았다는 점이다. 원인과 매개체를 세분화해 보니 참여자들이 평소 활동하는 익숙한 공간의 작은 턱이나 보도블록, 젖은 바닥처럼 사소한 요소들이 어르신들에게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

사업단별·시기별 특이점도 파악할 수 있었다. 학교급식 지원 활동은 물기에 의한 미끄러짐 사고 비중이 높았고, 학교 실내의 환경정화 활동은 부딪침과 낙상사고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또한 한여름이나 한겨울보다 계절의 초입과 말미에 사고가 증가하는 현상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위험요인을 미리 발견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구상했다.

매일 안전기상예보를 작성해 기상환경에 따른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월별 안전 카드뉴스를 제작하고, 사업단별 특성에 맞는 현장 중심의 안전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활동처 안전모니터링을 통해 발견한 위험요소와 사고 사례를 정리한 '안전 Check-List Book'을 제작하고, 현장 데이터도 꾸준히 축적하고 있다. 이처럼 업무 아이টে를 하나씩 개발하고 실행하면서 안전전담 업무체계도 점차 구축되고 있다.

그러나 근무한 지 몇 개월 만에 업무

체계가 완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제천시니어클럽에서 업무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여건을 보장해 주고 있고, 필자 역시 얽힌 실태를 하나씩 풀어간다는 마음으로 업무를 정리하다 보니 '안전전담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방향도 어느 정도 잡혔다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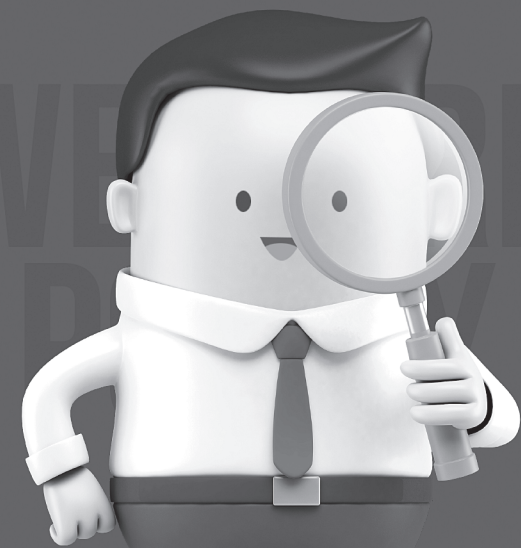
물론 과제도 남아 있다. 아무리 점검과 교육을 충실히 하고 좋은 자료를 만들어도 실제 참여자의 행동 변화와 사고 예방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형식에 그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서류나 보여주거식 실적이 아니라 참여자 한 분 한 분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다.

따라서 구축한 업무체계가 현장에서 효과를 발휘하도록 시행착오를 거치며 계속 수정·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활동처 안전모니터링과 사고 사례 분석, 사업단별 맞춤형 안전교육, 계절별 위험관리 체계가 현장에 자연스럽게 스며들도록 하고, 축적되는 안전 데이터로 바탕으로 한 '예방 중심 안전관리'의 방향도 고민하고자 한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더욱 확대될 것이며, 참여자 안전의 중요성 또한 커질 것이다. 노인일자리 안전은 부가적인 업무가 아니라 반드시 함께 풀어가야 할 핵심 과제다. 아직도 현장에서 배우고 고민하는 과정에 있지만, 이 글이 같은 고민을 하는 수행기관 실무자들에게 작은 힌트가 되었으면 한다.

처음 맡은 노인일자리 안전전담, 현장에서 고민한 것들

똑똑똑! 법률홈닥터입니다.

법률
홈닥터

법률홈닥터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취약계층에게
1차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법률주치의 제도'



지원 대상

기초수급자·다문화가족·범죄피해자 등
법률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내용

법률상담, 법교육, 소송절차 안내,
법률구조법인 및 사회복지기관
연계 등의 법률서비스 지원



상담 분야

채권·채무, 손해배상
근로관계·임금, 개인회생·파산
이혼·친권·양육권
생활법률 전반 등



신청방법

시 간 월~금 10:00~17:00
(공휴일 제외)
전 화 043-238-0843
사무실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87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302호

법률복지의 새 장을 여는
법률홈닥터

SSN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이 딸의 법률상식



신인경 변호사
〈법무부 인권구조과〉

Q. 저는 전 남편과 협의이혼한 지 5년이 넘었습니다. 전 남편은 이혼 당시 주기로 한 양육비를 한 번도 지급하지 않았고, 연락도 끊은 채 아이를 한 번도 보러 오지 않았습니

A. 자녀의 기존 성과 본을 변경하는 것은 개인적·사회적으로 기존의 성과 본을 통해 형성된 신뢰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81조 제6항).

이 제도는 이혼이나 재혼이 증가하면서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는 자녀가 많아진 현실을 고려하여, 기존의 성과 본을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자녀가 겪을 수 있는 생활상의 어려움이나 심리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다만, 어머니가 법원에 자녀의 성과 본 변경을 신청한다고 해서 반드시 허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민법 제781조 제6항에 따라 자녀의 복리를 위해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지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우선 자녀의 나이와 성숙도 등을 고려하여 자녀 본인의 의사와 친권자·양육자의 의사를 살펴봅니다. 또한 성과 본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 가족 간의 정서적 유대와 통합에 어려움이 생기는지, 학교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성과 본으로 인해 편견이나 오해 등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도 고려합니다.

반대로 성과 본을 변경할 경우 자녀가 자신의 정체성에 혼란을 겪을 가능성이 있는지, 기존의 성과 본을 함께 사용하고 있는 친부나 형제자매 등과의 유대관계가 약화될 우려가 있는지, 부양관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지도 살펴봅니다. 결국 법원은 성과 본을 변경하지 않았을 때 자녀가 받게 되는 불이익과 변경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비교하여, 어느 쪽이 자녀의 행복과 이익에 더

자녀의 성과 본 변경 제도

도움이 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경우에도 전 남편의 양육비 지급 여부나 자녀와의 교류 여부 뿐만 아니라 자녀의 나이와 의사, 현재의 가족관계, 학교생활 및 사회생활에서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성과 본의 변경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인사동정

- **충북사회복지관협회**
▷ 회장 조원행 / 8월 1일자
- **목령종합사회복지관**
▷ 관장 온정희 / 9월 1일자
- **청주시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위원장 배성희
▷ 부위원장 신현왕

인사동정 이용 안내

● 사회복지시설(기관·단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인사이동(기관장 변경, 법인 내 이동 등에 대해 게재를 원하시는 시설은 문의 바랍니다.)

※043-234-0840 김세나 대리

지역사회봉사단

마미손 봉사단, 매일 따뜻한 한 끼를 나누다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유응모, 이하 협의회) 소속 마미손 봉사단(이하 봉사단)은 목령종합사회복지관 구내식당에서 지역주민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점심 배식봉사를 하며 지역사회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봉사단은 2017년부터 구내식당을 찾는 지역주민과 취약계층에게 따뜻한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봉사자들은 단순한 배식에 그치지 않고 식재료 준비부터 중식 준비와 마무리까지 전 과정에 함께하며 원활한 급식 운영을 돕고 있다.



또한 조밥과 말밥, 정월대보름 등 음식 나눔행사가 진행될 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지역주민들과 음식을 나누며 이웃 간의 따뜻한 정을 나누는 데 힘을 보태고 있다.

한편, 지역사회봉사단은 VMS에 가입되어 있는 2인 이상 자원봉사자로 기술 및 재능을 가지고 있는 단체인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활동 혜택으로는 다양한 사회복지 분야의 맞춤형 봉사활동 연계, 봉사활동 활동재료 지원, VMS 봉사실적 관리, 우수봉사단 표창 등을 지원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충북사회복지협의회 누리집(www.043w.or.kr) 또는 충북사회복지협의회 복지정보과(☎043-234-0840)로 문의하면 된다.

복/지/만/평

완장

이창신 www.bokmani.com

완장을 차면 힘이 생깁니다.



그러나 벗으면 그 힘도 사라집니다.



직함의 유효기간은 그 자리에 있을 때까지입니다.

작은 정성이 모여 큰 희망이 됩니다.

2026년 호우피해 특별모금

모금 기간: 2026년 8월 18일 ~ 9월 15일

지난 광복절 연휴 기간 경남 거제시와 통영시를 비롯한 남해안 일대에 내린 극한호우로 소중한 집과 삶의 터전을 잃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작은 마음이 모여, 그들에게 다시 살아갈 용기와 희망이 됩니다. 따뜻한 나눔으로 함께 회복의 길을 만들어주세요.

모금기간	2026년 08월 18일 ~ 2026년 09월 15일까지
지원계획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지원 현물(의연금품)은 지역구호센터(지자체)를 통해 지원
기부문의	043-238-9100

농협은행 |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충청북도지회
313-01-144258

* 기부내역 및 기부금 영수증 발급 문의는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충북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정보제공 서비스' 신청 안내】

- 신청대상: 도내 사회복지시설·기관 종사자
- 발송내용: 도내 사회복지 행사 안내 및 유관기관 공모사업 제공
- 발송횟수: 주 3회
- 신청기간: 상시접수
- 신청방법: '충북복지넷' 홈페이지(www.043w.or.kr) 팝업창 참고

【충북사회복지협의회, 2026년도 유니버설디자인체험센터 교육 신청 안내】

- 신청대상: 도내 사회복지시설(기관) 근무자 및 이용자/회차별 40명 이내
- 주요내용: 주택체험관, 유디체험관 및 휠체어 체험관 견학 *무상교육
- 유니버설디자인을 도입한 거주공간 설계를 통해 모두가 불편함 없는 생활공간 체험
- 모두를 위해 디자인 된 UD 적용 일상용품 이해
- 이동약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주형 체험(별규칙 바닥로, 경사코스 등)
- 신청기간: 연중 신청 가능
- 신청방법: 전화 접수(T. 043-234-0840~2) *담당자와 일정 조율 후 신청서 제출
- 참고: https://www.043w.or.kr

【홀트아동복지회, 2026 통합위기가정지원사업 '우리 가족을 지켜주세요' 대상자 모집】

- 신청기간: 매월 1~7일
- 지원대상: 복합적인 위기상황에 처해 긴급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 아동과 그 가정 및 자립 준비청년
- 지원내용: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심리치료비, 교육비(가정당 최대 500만 원)
- 신청주제: 사회복지 유관기관 또는 의료기관 등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참고: https://love.holt.or.kr
- 문의: 아동복지팀(02-331-7053)

【우양재단, 2026년 새솔방 소원상자 사업 신청 및 결과보고 안내】

- 신청대상: 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는 전국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쉼터), 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하고 있는 폭력피해이주여성보호시설(이주민여성쉼터)
- 사업대상: 신청기관의 퇴소자로 신청일 기준

복지정보 제공

해당 월에 입주하였거나 입주가 예정된 가정, 퇴소 후 새로운 거주지에서 입주 초기 생활·정서·양육의 어려움을 겪는 가정 등

- 지원내용: 17가정당 먹거리, 생필품, 자기계발물품 구입비 50만원 지원
- 사업기간: 2026년 2월~12월
- 지원물품: 먹거리(최소 20만원~30만원), 생활용품(최대 20만원), 자기계발(최대 10만원)
- 신청방법: 구급품을 통한 구비서류 제출
- 사업문의: 아동청소년사업팀 사업 담당자(02-324-1324)
- 신청기간: 매월 1일~10일

【밀양복지재단, BMS 청년안환자 사회 자립지원 프로젝트 'REBOOT' 대상자 모집】

- 신청기간: ~2026. 9. 11.(금)
- 지원대상: 국내 청년 암 환자(만 19~39세) 중 아래의 지원 기준에 해당하는 자
- ①의료 기준: 암 진단 후 치료 목적의 초기 적극적인 치료(수술, 항암·방사선 치료)를 완료한 환자
- ②소득 기준: 중위소득 80% 이내
- 지원내용: ①맞춤형 취업·학업·교육·창업 관련 실비 지원(200만원 이내) ②맞춤형 문화·정서 지원(100만원 이내)
- 참고: https://www.miral.org
- 문의: 청년 암환자 지원사업 담당자(02-6411-3627)

【하트하트 재단, 2026 취약계층 통합지원사업 신청안내】

- 지원대상: (공통) 의료·생계비 지원이 필요한 만 18세 이하 저소득 아동·청소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80% 이내 아동·청소년 가정 / (의료비) 만 18세 이하 긴급수술 필요 환자, 희귀난치성질환 환자 등
- 지원내용: 의료비-연간 최대 200만원, 생계비-연간 최대 120만원
- 사업기간: 2026. 1. 1.~11. 30.
- 신청기간: 상시
- 신청방법: 구비서류 작성 및 이메일 접수(사회복지기관 또는 병원 등 기관을 통해 신청)
- 참고: www.heart-heart.org

【밀양복지재단, 2026년 영케어러(가족돌봄청년) 위기구복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안내】

- 지원대상: 질병 또는 장애가 있는 가족 구성원을 돌보는 중위소득 100% 이내의 만 16~24

자원 봉사자 모집

▶ **충북사회복지신문 우편발송 작업**
관리센터: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활동기간: 9.1~9.30.
전화번호: 043-234-0840

▶ **장애인디지털발리자 환경정리**
관리센터: 청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활동기간: 9.1~9.30.
전화번호: 043-275-7411

▶ **경로식당 무료급식 봉사**
관리센터: 산남종합사회복지관
활동기간: 9.1~9.30.
전화번호: 043-288-1428

▶ **어르신 이마용 봉사**
관리센터: 실버들요양원
활동기간: 9.1~9.30.
전화번호: 043-288-5020

▶ **프로그램 보조**
관리센터: 제천장애청소년직업적응훈련시설
활동기간: 9.1~9.30.
전화번호: 043-652-0420

▶ **한국어 교육**
관리센터: 진천군가족센터
활동기간: 9.1~9.30.
전화번호: 043-537-5433

▶ **경로식당 보조**
관리센터: 음성군노인복지관
활동기간: 9.1~9.30.
전화번호: 043-883-2470

지역사회봉사단 모집

관리센터: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활동기간: 연중
전화번호: 043-234-0840~2

*자료출처 : www.vms.or.kr